

개정증보 2판

말씀과 기도가 있는 구역 만들기 1

예수님따라 사는 사람들

| 정명철 지음 |



Q 콤란출판사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의 확신과 교육과 훈계와 위로 등 수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이 주제들을 어떻게 균형 있게 가르칠 것인가가 늘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교인들 모두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하는 동안 구역장을 양육하면서 늘 안게 되는 고민이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 지식, 신앙의 훈련 정도, 나이 등이 각기 다른 구역장들을 어떻게 동일한 비전으로 이끌고 갈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구역장은 작은 목회자입니다. 목사와 같이 구역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양육을 하고, 구역원들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그러므로 구역장의 부흥은 구역의 부흥으로 교회의 부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구역장들을 훈련해 왔던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책으로 발간하게 된 이유는 목회를 중심으로 쓰인 글이기 때문입니다. 구역장들이 누구나 읽고, 직접 구역원들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무엇보다 전교인이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하여 매주일 한 번은 말씀과 기

도가 있는 가정이 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발간하였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책을 출판할 때에는 원문을 요약하여 출판하였는데, 이번 개정증보2판에서는 원문을 다 실어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요약본인 2~4권도 개정증보판을 내려고 합니다. 《예수님 따라 사는 사람들》 개정증보2판이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책이 발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모든 분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도림의 모든 구역장, 권찰들과 성도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2020년 5월
정명철 목사

1과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는 교회(행 9:31)	9
2과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	19
3과	나사로야 일어나라(요 11:40-44)	28
4과	기도의 사닥다리(창 28:10-19)	36
5과	성경을 만나라(딤후 3:16-17)	45
6과	갑절의 영감(왕하 2:1-14)	54
7과	바울의 기도(엡 1:15-19)	63
8과	네 마음을 지키라(잠 4:23-27)	72
9과	진정한 자유(눅 4:16-19)	81
10과	하나님 나라(눅 13:18-21)	90
11과	참된 평안을 얻으려면(요 14:27)	99
12과	헤드헌팅(요 13:12-17)	109
13과	아버지께서 주신 잔(요 18:10-11)	119
14과	승리의 노래를 부르자(고전 15:50-58)	126
15과	깨어 있으라(막 13:28-37)	133
16과	내가 빛진 자라(롬 1:13-17)	141
17과	의인의 상(마 10:40-42)	147
18과	자녀에게 가르치라(신 11:18-21)	156
19과	은혜를 잊지 말라(잠 23:22-26)	165
20과	행복한 가정의 비결(엡 5:22-25)	174
21과	복음 전하는 자(마 28:16-20)	184
22과	매일 샘솟는 기쁨(요 4:13-14)	193
23과	예수님 따라 사는 사람들(눅 6:27-31)	203
24과	기도하십시오(시 37:5-7)	212
25과	찬송하십시오(시 42:5)	222
26과	구하라, 주시리라(약 1:5-8)	230

27과	좋은 소문(행 11:19-26)	239
28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요 21:15-18)	248
29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시 121:1-8)	257
30과	낙타 무릎(마 6:5-8)	266
31과	주님을 만나는 예배(롬 12:1-2)	275
32과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려면(창 12:10)	284
33과	생명의 면류관(약 1:12-15)	294
34과	상을 위하여(빌 3:12-14)	303
35과	와 보라(요 4:27-42)	312
36과	내게 있는 것(행 3:1-10)	322
37과	추수의 계절(마 13:1-9)	332
38과	새로운 지도자(출 32:25-29)	341
39과	복을 받는 사람(갈 3:6-9)	351
40과	세상의 등불(눅 11:33-36)	361
41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렘 1:4-10)	370
42과	두려움을 극복하라(출 4:10-17)	379
43과	참된 생명(딤후 6:17-19)	387
44과	심는 대로 주옵소서(갈 6:6-10)	395
45과	감사하십니까?(신 26:1-11)	403
46과	엘리의 길과 사무엘의 길(삼상 3:10-14, 19-21)	409
47과	인생의 밤이 찾아올지라도(삼상 21:7-15)	418
48과	주님의 나라(눅 8:43-48)	428
49과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눅 2:25-35)	436
50과	쳐다본즉 살더라(민 21:4-9)	444
51과	나의 성탄 트리(마 1:18-25)	453
52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출 12:43-51)	461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는 교회

- ✎ **본 문:** 사도행전 9장 31절
- ✎ **찬 송:** 551장(오늘까지 복과 은혜, 통 296장)
- ✎ **요 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행 9:31)

미국의 흑인 지도자 마틴 루터 킹은 47년 전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 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불의와 억압이 존재하는 미시시피 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가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돌우어지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노예선을 타고 온 노예의 후손으로 혼혈부모 가운데 태어나 부모의 이혼과 정체성의 혼란 등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한 한

흑인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미국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입니다. 오바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외쳤던 구호는 “우리는 할 수 있다”(Yes! We can)였습니다. 오바마가 고등학교 시절, 그의 주변에는 온통 백인들뿐이었습니다. 70년대 후반 고등학교의 농구장에 두 명의 흑인이 서 있었습니다. 오바마가 가장 절친했던 케이스 카쿠가와라는 친구였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케이스 카쿠가와는 마약과 차량절도로 감옥에서 7년을 살고 지금은 노숙자로 살고 있습니다. 오바마가 대통령 후보자로 선출된 이후에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감옥에서, 한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 후보로 서로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긍정의 힘을 믿었던 오바마는 미국의 대통령의 꿈을 이루었고, 꿈을 잃어버린 케이스 카쿠가와는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미국 최고의 기독교 지도자 마틴 루터 킹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는 꿈을 꾸었고, 그 꿈이 기독교인 오바마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꾸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세상이 어둡고 불의가 득세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꿈꾸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꿈을 꿈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꿈을 꿈니다.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2천 년 전 팔레스타인 변두리에서 시작된 이 세상을 사랑으로 정복하리라는 꿈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두려워 도망하였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이들에 의하여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하여”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리하여”라는 말은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핍박하였던 바울이 변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을 때에 유대에 있는 교회도, 갈릴리에 있는 교회도,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도 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평안한 비결, 교회가 든든해지는 비결은 변화에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교회는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자꾸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기 위해 움직이고, 찬송 부르기 위해 움직이고, 전도하기 위해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것은 우리 몸속에 세포가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지하는 순간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지구상에 가장 힘센 동물이 코끼리입니다. 아무리 집채만 한 코끼리도 정지하는 순간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생물도 움직여야 살고, 조직도 움직여야 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부지런히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하기 위해 움직이고, 봉사하기 위해 움직이고, 부흥하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 교인이 꼭 실천해야 할 과제를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하루 한 장 성경 읽기, 하루 한 시간 기도하기, 한 생명 구원하기”입니다.

어느 절에서 큰 스님이 말하기를 “다들 모였느냐? 오늘은 너희들 공부 얼마나 깊은지 알아보겠다. 새끼 새 한 마리가 있었느니라. 그것을 데려다가 병에 넣어 길렀느니라. 그런데 이게 자라서 병 주둥이로 꺼낼 수 없게 되었는데, 그냥 놔두면 새가 더 커져서 죽게 될 것이고 병도 깰 수 없느니라. 자, 이제 새를 구할 방법을 말해 보거라. 새도 살리고 병도 깨지 말아야 하느니라. 너희들 대답이 늦으면 늦을수록 새는 빨리 죽게 되느니라”고 했습니다.

이에 제자들 중 한 명이 “새를 죽이든지 병을 깨든지 둘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큰 스님은 대노하여 “멍청한 놈아, 누가 그런 뻔한 소리를 듣자고 화두를 던진 줄 아느냐?”라고 했습니다. 이에 다른 제자가 다시 “새는 삶과 죽음을 뛰어넘어서 피안의 세계로 날아갔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쫓쫓쫓, 네 놈도 제 정신이 아니구나.” 이에 또 다른 제자 한 명이 “병도, 새도, 삶도, 죽음도 순간에 나서 찰나에 사라집니다”라고 하자 큰 스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거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제자 중에 한 명이 “새는 병 안에도 있지 않고, 병 밖에도 있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자, 큰 스님이 말하기를 “너도 뜯구름 잡는 소리를 하고 자 빠졌구나”라고 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큰 스님, 저희들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답이 있거나 합니까?”라고 했습니다. “암, 있지. 있고 말고...나무아미타불...” “도대체 답이 무엇이옵니까?” 그러자 큰 스님이 단호한 어조로 말하기를 “간단하다. 가위로 자르면 되느니라.” 모두들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큰 스님 왈 “페트병이었느니라. 관세음보살...”이라고 했습니다. 스님을 예로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쉽게 생각하면 길이 보이는 법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씩 시작하면 됩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일 낮예배만 참석했으면 올해부터는 오후까지 참석해 봅시다. 한 번 더 예배드립니다. 지금까지 주일 오후예배까지 참석했으면 올해는 수요일예배까지 참석해 봅시다. 수요일예배까지 참석했으면 올해부터는 새벽기도회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나와 봅시다. 한 번만 더 힘내면 내가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생각하면 쉬운 길이 보이는 법입니다.

1. 하루 한 장 성경 읽기를 실천합시다

“목사님, 저는 하루에 열 장씩 성경을 읽는데, 왜 한 장만 읽으라고 하십니까?” 하고 물으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잘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루 한 장 이상씩은 꼭 읽자는 뜻입니다. 하루 한 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새해에는 한 생명 이상씩 구원하자는 뜻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대하십시오. 하루 한 장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습니까? 축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복되게 살고 영원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이 복되게 사는 비결이 들어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히 4:12)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판단하니 복된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내 생각, 내 뜻으로 판단하면 망하는 길도 못보고 갑니다. 늘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생각은 항상 사탄이 틈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못난 사람도 잘난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으로,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불평하는 사람을 감사하는 사람으로, 불행한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망하는 사람이 왜 망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망하는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해도 항상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믿으면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은혜요, 내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 존경받으며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결심을 하시고,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 하루 한 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 자신을 경건하게 바로잡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외골수로 하는 사람은 참 위험합니다. 이런 사람이 이단에 잘 빠집니다. 목사가 무엇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길을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목사도 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시고, 목사의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성도를 말씀으로 먹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에는 다 합당한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새해에 직분자로 세움을 받는 분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세우실 때에는 직분자에 합당한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직분자는 내가 능력이 있고 자격이 되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은 죄가 많고, 또 내가 직분자가 되어서도 직분자 값을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고 염려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집사를 맡기셨으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합당한 은혜도 주시고 복도 내려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면, 내가 기도로 하나님께 다시 올리는 것입니다. 내려오기만 해서도 안 되고 올라가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면 예배는 모두가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면 예배의 부름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다시 송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송영은 세상에 대한 도전이요,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외에는 아무 것도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송영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헌을 올려드리고 마지막에 축도로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고 다시 송영을 드리는 것으로 예배가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고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헌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면 이번에는 우리의 것을 통해 올라가야 합니다. 이 올라가는 통로가 막혀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통로를 여는 시간입니다.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고 축복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모두가 기도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남북전쟁 당시에 포탄이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천막에 들어가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의 천막에 손수건이 걸려있으면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쟁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비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통로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벽이 가로막혀 있습니까? 한 해 동안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막힌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다. 마귀는 여러분이 기도 안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통하여 시험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마귀가 흔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구하는 것을 응답받고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 한 사람이 한 생명을 구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마다 부흥이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난해에도 많이 부흥했고, 교회마다 어렵다고 하는데 재정도 넘치게 채워 주셨습니다. 일할 사람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일하라고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교회에는 사람도 자꾸 보내주십니다. 어제 대구에 계시는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 부부가 서울로 이사 갑니다. 이번 주에 도림교회에 등록할 것입니다”라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여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너는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지상명령을 준행하라고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이웃, 믿지 않는 회사 동료를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여러분 옆에 보내주셨습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전도하라고 보내주셨습니까? 그러므로 내 가까운 옆에 불신자가 있다면 나에게 책임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구원할 생명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면서, 올해는 모두가 전도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

아지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일 년 동안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거룩한 사역에 쓰임 받는 주의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도 평안하여 말씀 위에 든든히 서 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